정면엔 하나님, 측면에 사람

(눅6:37-38)

37.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정면엔 하나님, 옆면에 사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정면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사람은 절대 정면으로 바라보지 말고 측면에 나란히 서라는 얘깁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비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헤아리지도 말라, 그리고 오직 용서만 할 뿐이고 주기만 하라.'
아, 참 불가능한 얘기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해라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불가능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헤아리지도 않고 용서만 하고 주기만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재밌고 너무 은혜스럽고 즐겁고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라도 깨닫게 됩니다.
이보다 재밌고 이보다 즐거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데에 비판이 안 되고 정죄가 안 되고, 용서만 되고 주기만 하고 절대 사람을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지 않고 사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생인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된다는 얘기에요.

비판과 정죄와 헤아림, 용서와 주기, 이것은 행위의 문제이기 전에 위상의 문제입니다.
위상이라는 것은 위치와 상태, 내가 놓여 있는 위치와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놓여 져 있는 위치를 바꾸면 비판을 하려해도 할 수도 없고 비판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비판이 되지 않는 삶, 정죄가 되지 않는 삶, 사람을 보면서 헤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거기서 행복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주기만 하는 그런 마음상태, 방향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성경에서 아주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가서 어제, 우리가 원수를 삼는 일도 결국은 마귀사탄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좋은 일이라고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에 동조하고 신뢰를 주고 마귀와 동행했습니다, 마귀를 사랑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 것이에요.
그 결과 사람을 원수로 삼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맥락이 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나타나는 일이 비판이고 정죄고 헤아림입니다.
용서가 없어지는 것이고 주지를 않고 내 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왜 사람은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헤아리게 되었느냐?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다고 합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어서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삶에 임재해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시는 분이고 의견이 있으신 분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동산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동산 중앙에 서 있었다는 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담이 하와가 태어났을 때 하와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선악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아담은 결코 하와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얘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선악과는 볼록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저희 아파트에서 나오다 보면 도로와 만나는 지점이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옆에 건물들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도로로 진입하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도로 저편 정면에 커다란 볼록거울을 하나 달아놓았습니다.
볼록거울을 달아놓으니까 직접 시야에 가려져 있는 좌편과 우편에서 차가 오거나 사람이 오면 그 볼록거울에 다 비칩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정면에 있는 볼록거울을 보면 좌우측면에 있는 모든 움직임들이 다 파악됩니다.

선악과는 에덴의 볼록거울이었습니다.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담은 절대로 하와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이 하와를 보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와를 느끼는 겁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그곳에 서계신 것이라고 보면 돼요.
생각하시는 하나님,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 자리에 서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있어서 볼록거울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정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면서 볼록거울이신 하나님에게 비쳐진 하와의 모습을 보며 하와를 상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선악과가 서있는 중앙에 계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와를 지었습니다.
하와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당신 자신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보시면서 '아담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실 때에 아담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비쳐진 하와를 보며 기뻐합니다.
이게 바로 에덴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사람에게 이상한 습성이 생겼습니다.
자기 생활, 타락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활의 터전이 에덴 아니었습니까?
이제 에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과 삶의 터전을 갖게 되는데, 이상한 습성이 생긴 것은 자기 삶의 터전에서 자기가 중앙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깁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섰고 내 삶의 중앙에 서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판단, 그 사람에 대한 헤아림, 그 사람의 성격, 재산상태, 학벌 등이 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헤아리는 헤아림과 그 사람에 대한 비판과 정죄입니다.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원수마귀를 사랑하고 그에게 동조하면서 생긴 또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노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 헤아림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 비판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 판단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측면에 두고 내 판단을 강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 비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양쪽 다 교인이고 한쪽은 목사님 편, 다른 한쪽은 장로님 편입니다.
목사님도 교인이고 장로님도 교인입니다.
목사님 편도 교인이고 장로님 편도 교인입니다.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상대방을 향하여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비판과 나의 정죄를 강화시켜주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사이드에서 보조역할로 고문변호사 격으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사이드 보조 변호사의 역할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면접관을 대하고 있는 입사지원자들을 생각하시면 되요.

입사지원자들은 절대 자기들끼리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면접관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입사지원자들끼리는 보지도 못하게 옆으로 나란히 앉게 됩니다.
내가 내 아내를 상대할 때, 아들과 딸을 상대할 때, 부모님을 상대할 때, 직장동료와 상사와 부하를 상대할 때, 언제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사람이 사람을 마주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하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이 원죄의 습성을 따라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치를 바꿔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나는 나란히 옆으로 서야 되고, 내가 그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은 선악과나무 자리에 서서 중앙에 서있다는 것이니까 옆으로 옮겨서 그 사람과 나란히 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마음이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측면에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정면으로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사람과 만날 때 얼굴은 그 사람을 향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면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육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의 실상이 볼록거울이신 하나님께 비춰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걸 가르쳐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옆으로 나란히 세운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라고 가르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고 그대로 보면 됩니다.

스테판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스테판이 정면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봤다면 거기엔 용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분노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테판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보지 않고 옆으로 세우면서 정면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이라는 볼록거울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비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스테반에게 전달이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멸망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스테반이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면으로 바라보면 내 원수인데, 내가 마음으로 상대하지 않고 옆으로 세워두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라는 거울에 비친 이웃의 모습을 보고,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비쳐진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정면으로 보면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이웃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볼록거울에 비쳐진 모습으로 이웃을 볼 때는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갑자기 주라는 말씀이 나와요.
용서까지는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라는 말씀이 뜬금없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힌트에요.
왜 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비판이라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내 마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고 또 나아가서는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도 보지 않습니다, 상황도 나란히 옆에 세워둡니다.
그래서 상황을 정면으로 보면 상황에 대한 비판이 생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나쁜 상황이다, 이러다 망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비판도 떨쳐버립니다.
내 옆에 세우고 마음으로 정면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상하게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땅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 되어서 강물처럼 내게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이 강물은 막으면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개발의 제일 큰 문제가 보를 건설해서 물의 흐름을 막으면서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생태계가 변하고 녹조현상이 가속화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의 확신이 들고 감격이 들어오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내게로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흐름은 막으면 안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양 옆구리를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무한대의 자원이 들어있어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통장이십니다.
단, 나는 아직도 죄의 습성에 따라서 쓸 때와 안 쓸 때를 구분 못하고 얼마만큼 써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내 통장이시지만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만큼 100% 알맞고 적절하게.
그래서 내게 들어온 모든 것이 내 옆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무한대의 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로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낌없이 다 열어놓고 흘려 내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용서하고 주려고 하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준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내 인생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움켜쥐게 됩니다.
통장을 봅니다, 그러면 아끼게 됩니다.
다 닫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보면 완전히 다 열려버립니다.
모든 수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내 시야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데에 조준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시야를 어떤 데에 두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조준관 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아서 된 일이 주님 따라 승천해서 하늘까지 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보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우편에 계세요, 우편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고백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각오를 해야 될 것이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돌아와서 사업 잘돼서 기쁘고, 자식농사 잘돼서 기쁘고, 건강해서 기쁘고, 이런 것 없어요.
이제는 주님 따라 승천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 세상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성령께서 차원이 다른 세계를 내 마음이 느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은 내 옆으로 놓이게 됩니다.
면접관을 향하여 지원자들이 앉아있는 그런 위치로 옮기게 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대로 내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것을 마음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위한 준비가 따로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마음에서 하나님이 보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것이 보이고 주게 됩니다.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밀려들어오는 걸 받으려면 빼내야 되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경우에 절대로 옆에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가 나가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의견이 볼록거울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비춰주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나 남에게 악행을 할 때 하나님의 볼록거울에서 그 이웃의 악행을 볼 때는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원수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옆의 사람을 볼록거울이신 하나님을 통해 볼 때와 내가 정면으로 볼 때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은 원수마귀를 사랑한 것입니다, 원수마귀에게 동조한 것이고, 원수마귀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를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 사람을 원수로 삼는 일이고,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된 일입니다.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정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렇게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에덴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의 마음의 에너지를 무한히 고갈시켜가면서 피폐한, 비판하면 괴로운 겁니다, 정죄하면 괴로운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다시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자의 특징,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자의 특징, 비판합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사람은 면접관 앞에 있는 같은 지원자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지원자에 대해서는 면접관만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혹시 면접관이 나에게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가르쳐주시면 그것은 기도의 제목이 될 뿐입니다.

아, 행복함이 여기 있습니다.
기쁨과 보람이 여기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것이 바로 사람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세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모든 만나는 사람을 옆에 나란히 세우면서 위치를 바꾸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은 정면에 사람에 측면에 세워두는 위치 바꿈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에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